

C7006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위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위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펀드명칭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D911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중류형	최초설정일	2016.05.02
운용기간	2021.01.01 ~ 2021.03.31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국내 채권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채권투자에 있어 국공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자산 총액 (A)	9,153	8,348	-8.80
	부채 총액 (B)	3	3	-14.45
	순자산총액 (C=A-B)	9,150	8,345	-8.80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8,642	7,930	-8.24
	기준가격 (E=C/D × 1000)	1,058.84	1,052.36	-0.61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1분기 국내 채권 시장은 백신 보급으로 인한 국내의 경기 회복 기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및 미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미국은 바이든 취임 이후 의회에서 1.9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정책이 발표되면서 기대감이 커졌고, 백신 접종 속도가 바이든 정부의 목표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코로나19 조기 극복 가능성이 커져 커브가 가팔라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경제 지표의 완만한 개선도 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작년 4분기 GDP 성장을 연월화 된 수치는 전분기 대비 4.3% 성장하였고, ISM 제조업 지수는 작년 4분기 말 11월 기준 57.7였는데 반해 올해 1분기 말 2월 기준으로는 60.8로 상승하여 경기 회복 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연준은 금리를 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상당한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통화정책을 정상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점도표상으로도 2023년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4.2%에서 6.5%로, 2022년은 3.2%에서 3.3%로 상향 조정하였지만 연준이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며 분기말 금리가 급등해 1.75%를 돌파하였습니다. 이어서 SLR(Supplementary Leverage Ratio) 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수급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금리 상승이 지속되었습니다. 1분기 국내 채권 시장은 미국의 금리 상승과 함께 수출이 개선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채권 수급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 상승 요인이 되었었습니다. 한편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은 1월에 11.4%, 2월에 9.5%, 3월에 16.6% 증가하며 강한 개선세를 보이면서 채권 시장에 지속적으로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분기말에는 국고채 3년 금리가 1.3%를 돌파하였고, 미국 FOMC 이후 미국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다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10/30년 스프레드가 역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은행은 전월에 발표한 5-7조원 이외에 추가로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채권 시장의 수급 우려를 발행량 결정시 감안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연준 의장의 시장 안정화 발언에 따라 미국 금리 상승이 제한되면서 국내 금리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말 기준 펀드 듀레이션은 벤치마크 대비 89.79%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2분기 국내 채권 시장은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이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리의 상승 압

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 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데의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고, 국내 금리도 이에 따라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율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경기 회복 속도에 비해 급격한 금리 급등이 경기 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담감이 커지면서 금리의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달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금리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단순 매입 추가 확대와 만기별 발행량 조정 등과 같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금리를 안정화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행과 정부의 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가 향후 추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대내외의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인한 채권 시장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BM레벨보다 낮은 수준에서 듀레이션 유지를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 및 주요 통화정책 당국의 정책 스탠스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유 현물을 활용해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듀레이션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0.61	-1.19	-1.16	-0.26
(비교지수 대비 성과)	(-0.09)	(-0.21)	(-0.49)	(-0.83)
비교지수(벤치마크)	-0.52	-0.98	-0.67	0.57

* 비교지수(벤치마크): KOS공채10년이하(T-1) X 95% + CALL지수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0.26	1.54	5.16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83)	(-1.95)	(-3.14)	(-)
비교지수(벤치마크)	0.57	3.49	8.30	-

* 비교지수(벤치마크): KOS공채10년이하(T-1) X 95% + CALL지수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0	0	0	-54	0	0	0	0	0	-11	-64
당기	0	0	0	-44	0	0	0	0	0	-8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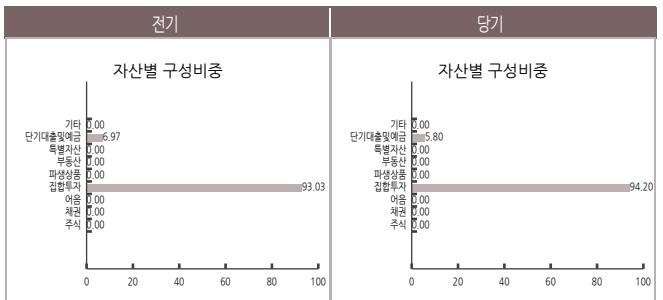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	0	7,864	0	0	0	0	0	484	8,348
(1.00)	(0.00)	(0.00)	(0.00)	(94.20)	(0.00)	(0.00)	(0.00)	(0.00)	(5.80)	(0.00)	(100.00)
합계	0	0	0	7,864	0	0	0	0	484	0	8,348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프랭클린베스트국공채재간접CF	94.20	6		
2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5.80	7		
3				8		
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프랭클린베스트국공채채권(CF)	채권형	7,929	7,864	대한민국	KRW	94.20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6-05-02	484	0.23	-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서장	42	81	2,597,437	-	-	2119000125
이대석	차장	39	81	2,597,437	-	-	2120001220
김태현	과장	38	81	2,597,437	-	-	2119000109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2021.03.23	최영혁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10	0.09	8	0.09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11	0.10	8	0.10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0	0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간편잔)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3894	0	0.3894
당기	0.3883	0	0.3883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 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